

이승은 | 연구원 (제 7122)

- 주요 뉴스: 데일리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금리 인하 지연될 가능성
 - 일본, 3월 근원 소비자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금리 인상에 무게
 -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 인상 가능성 시사
 - 트럼프 대통령, 파월 연준의장의 해고를 적극적으로 고려
- 국제금융시장: 미국 및 유럽 금융시장은 대부분 성 금요일 연휴로 휴장
 - 주가 휴장[성 금요일], 달러화 하락[-0.15%], 금리 휴장[성 금요일]
 - 주가: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무역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하락
일본 닛케이지수는 상호관세 협상, 엔화 강세 진정 등으로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하락
유로화 가치는 0.25% 상승, 엔화 가치는 0.18% 상승
 - 금리: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일의 상승분을 일부 되돌리며 하락
미국과 유럽 채권시장은 성 금요일 연휴로 휴장

※ 뉴욕 1M NDF 종가 1421.3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24.1원, 0.05% 상승). 한국 CDS 하락

		4/18일	4/17일	전일대비			4/18일	4/1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휴장	5,282.7	-	국채 금리 10y	미국	휴장	4.32%	0bp
	유럽	휴장	506.42	-		독일	휴장	2.47%	0bp
	중국	3,276.7	3,280.3	-0.11%		영국	휴장	4.57%	0bp
	일본	34,730	34,378	1.03%	CDS 5y	한국	35bp	36bp	-1bp
	한국	2,483.4	2,470.4	0.53%		중국	67bp	68bp	-1bp
환율	달러지수	99.2	99.4	-0.15%	위험 지표	EMBI+	-	399	-
	유로화	1.1393	1.1365	0.25%		VIX	휴장	29.65	-
	엔화	142.18	142.43	0.18%		WTI유	휴장	64.68	-
	위안화	7.2998	7.2992	-0.01%	원자재	구리	휴장	473.9	-
	원화	1,423.3	1,418.9	-0.31%		금	휴장	3,326.9	-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데일리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

-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1년 전보다 높아졌다고 평가. 인플레이션은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하다는 입장
- 관세 및 기타 정책의 경제적 영향이 명확해지고 나서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정책 불확실성은 물가 및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현재까지 미국 경제는 “좋은 모멘텀”으로 “좋은 상황”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 강력한 경제가 이러한 관망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고 첨언
- 다만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올해 말 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다고 언급. 연내 2회의 금리 인하를 시사한 3월 SEP 결과에 동의하면서도 인플레이션과 성장 추이에 따라 줄어들거나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평가하며 데이터 의존적 접근 방식을 시사
- 중립 정책금리는 약 3%로 추정하면서도 향후 상승할 수 있으며,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언급. 이번 인터뷰 발언 내내 긴급하지 않은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강조하며 인내를 요구
- 한편 트럼프 정책의 미국 경제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은 다소 낙관적으로 평가. 지금까지 정책 불확실성이 경제를 둔화(투자 축소 및 해고 등)시킨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단지 기업들이 위험 감수를 회피하는 정도라고 발언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일본, 3월 근원 소비자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금리 인상에 무게

- 3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대비 3.2% 상승하여 전월(+3%)에서 가속화.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2월 2.6%에서 3월 2.9%로 상승. 식료품 가격 상승(전년대비 +6.2%)이 금번 상승을 주도
- BOJ 우에다 총재는 예측대로 근원 인플레이션이 2%로 가속화할 경우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 다만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물가 상승 가속화 여부를 선입견 없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

■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 인상의 종식 가능성을 시사

- 트럼프 대통령은 對중국 관세를 계속 올리는 것이 꺼려진다고 말하면서 중국이 협상을 위해 반복적으로 대화를 시도했다며 합의 도달에 대한 낙관론을 피력. 다만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접촉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

■ 왕이 중국 외교부장 · 리창 중국 총리, 무역전쟁과 관련한 발언

-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징벌적 관세를 두고 권력 정치와 일방적인 괴롭힘이 국제 규칙을 훼손하고 분열과 대립을 초래한다고 비판. 리창 총리는 당국에 주식 ·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육성 노력을 강화해 무역 긴장에서 경제 보호를 촉구

■ 트럼프 대통령, 파월 연준의장의 해고를 적극적으로 고려

- 헤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대통령 팀은 파월 의장의 해임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발언. 트럼프는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을 비난한 후 자신에게 해임 권한이 있다고 시사. 진행 중인 대통령의 노동위원회 위원 해임 소송은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잠재적 선례로 관심이 집중

■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 벤스 미국 부통령, 우크라이나 휴전을 두고 발언

- 루비오 국무장관은 협상 타결의 분명한 징후가 없는 한 중재 시도를 며칠 내로 철회할 것이라고 경고. 비타협적인 러시아에 대한 백악관 내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 벤스 부통령은 같은 날 종전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발언
- 한편 미국은 러-우 평화 협정 제안안을 동맹국들에 제시. 휴전을 지속할 경우 전쟁을 끝내고 대러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조건이 포함

■ 미국, 국내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선박에 수수료 부과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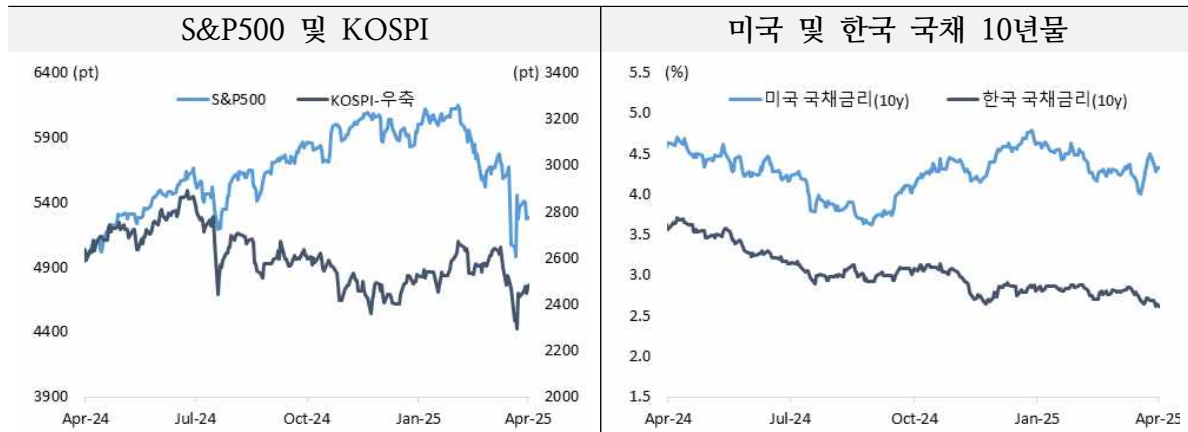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선박에게 수수료를 징수하여 쇠퇴한 미국 조선 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제안. 중국 외교부는 해당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미국 조선 산업에도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

주요 경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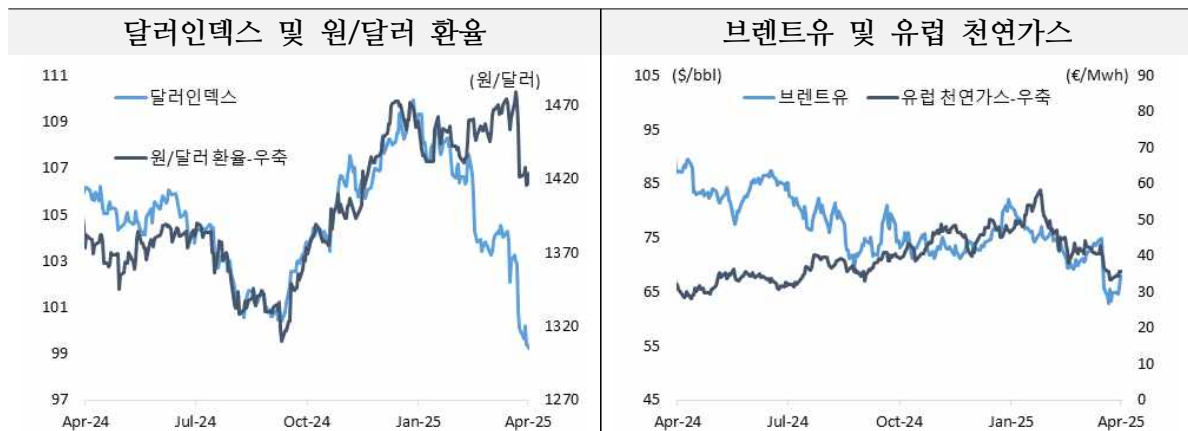
■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현지시각 기준)

- IMF 4월 춘계 총회(21~26일)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37, E-mail selee@kcif.or.kr